

금융권 차기 회장은 누구

# 이원덕·박화재 등 10여명 거론... 손태승 거취도 주목

우리금융지주, 18일 임추위 개최  
관료출신 등 1차 후보군 곧 윤곽  
'라임 중징계' 손태승, 막판 고심  
용퇴시 이원덕-박화재 2파전 예상

우리금융지주가 오는 18일 차기 회장 추천을 위한 임추위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연다.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막을 올리는 셈이다. 우리금융 차기 회장 후보로는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거론되고 있다. 손태승 회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1차 후보군 주목

우리금융 정관을 살펴보면 임추위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최소 30일 이전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주총 소집 공고는 통상 3월에 열리는 데 최소 21일 이전 소집통지가 돼야 한다.

임추위는 그전에 차기 우리금융그룹 회장 후보를 추천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2월 중에는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 회장의 임기는 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화재 우리금융 사장

는 3월 25일 만료된다.

1차 후보군(롱리스트)에는 10명 안팎의 후보자들이 거론되고 있다. 손 회장이 롱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지 관심이 쏠린다.

하마평 중 내부 출신 인사로는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화재 우리금융 사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정원재 전 우리카드 사장, 황록 우리파이낸셜 대표(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외부 인사로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과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손 회장은 현재 금융당국으로부터

용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연임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만 당국의 압박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함께 손태승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의결했다. 문책경고는 금융권 신규 취업을 제한하는 징계이기 때문에 손 회장의 연임에 걸림돌이 된다.

이사회가 재선임으로 방향을 잡으면 손 회장은 2년 전 처럼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준비에 착수하고 우리금융은 손 회장을 CEO 후

보로 추천함으로써 현재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손 회장이 징계를 받아들이고 용퇴하면 우리금융은 새 CEO를 맞이하게 된다.

◆ 신임 회장 2파전 예상

새로운 CEO를 맞이할 경우 이원덕 은행장과 박화재 우리금융그룹 사업총괄 사장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이원덕 회장은 2019년 우리금융이 그룹 체제로 재출범한 이후 그룹의 숙원이었던 완전 민영화에 성공하는 과정에서 은행과 지주의 요직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다.

이 회장은 손 회장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오면서 손 회장 후임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화재 사장은 상고 출신 은행원에 4대 금융지주 고위 임원에 오른 인물이다. 우리은행 주택금융사업단장과 서초영업본부장, 여신그룹 담당 부회장 등을 거친 그룹 내 대표적인 영업통이다. 지주사의 사장에 올랐고 그룹 업무를 일임 받아 우리은행과 우리카드, 우리증권 등 계열사 시너지를 극

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박 사장은 지점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어려운 경기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이 행장과 박 사장은 지난해 우리는 행장 자리에서도 치열하게 경쟁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금융이 신한금융과 똑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신한금융은 조용병 회장이 용퇴 후 신한은행장이었던 진옥동 행장이 회장으로 내정됐고, 신한은행장에는 한용구 부행장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금융이 신한금융의 전철을 밟을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 회장 용퇴시 이 행장과 박 사장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 행장과 박 사장 모두 내부출신에 전략통과 영업통으로 꼽히고 있어 누가 회장직에 올라도 현재 위기를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BNK금융, 안감찬·빈대인·김윤모 '3파전' 압축

회추위 최종 후보군 3명 선정  
전·현직 은행장 vs 외부인사

BNK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후보군이 3명으로 좁혀지면서 누가 회장 자리를 차지할 지 관심이 쏠린다.

BNK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최근 회장 최종 후보군으로 빈대인 전 부산은행장(62), 안감찬 부산은행장(59), 김윤모 노퍽인베스트먼트 부회장(63)을 선정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모피아' (재무부처의 고위관료 출신 인사들을 마피아에 빗대어 부르는 말) 후보가 앞서 탈락하면서 전·현직 부산은행장과 자본시장 전문가가 경쟁하는 모양새가 됐다.

임추위는 오는 19일 2차 후보군 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한 뒤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정하고 이사회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최종 후보는 3월 이사회와 주주총회



안감찬 부산은행장



빈대인 전 부산은행장



김윤모 노퍽인베스트먼트 부회장

승인을 거쳐 3년 임기의 제4대 BNK 금융 회장에 취임한다.

내부 출신인 안감찬 회장은 현직이란 강점이 있다. 또 경영 능력 측면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안 회장은 1963년생으로 흥천고, 부산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부산은행에 입행해 마케팅본부장과 여신운영그룹장(부회장) 등을 거쳐 2021년 부산은행장에 취임했다. 안 회장은 취임 첫해부터 연간 순이익 4000억원을 달성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내부사정에 밝은 안 행장이 어수선해진 내부 분위기를 안정시킬 적임자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안 회장은 파벌 논란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12월 BNK 금융은 국정감사 때 파벌 논란에 휩싸였다. 이상호, 성세환 2명의 전 회장들의 출신학교인 부산상고와 부산대, 동아대 출신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됐다는 논란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기자회견과 만나 "전임 회장 사퇴 이후에

도 특정 학교 등의 파벌을 중심으로 내부에서 갈등이 있다고 한다"며 BNK 금융의 파벌 문제를 지적했다. 따라서 부산대를 졸업한 안 행장의 학력이 후보 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빈대인 전 은행장은 1988년 부산은행에 입행해 신금융사업본부장(부회장)과 미래채널본부장 등을 거쳐 2017년부터 3년여 간 부산은행장을 지냈다. 빈 전 은행장은 금융 디지털혁신에 선도적으로 나서며 지역 금융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은행장 재임 시절 지방은행 처음으로 모바일 전문은행(썸뱅크)을 출시하는 등 디지털 금융과 글로벌금융 부문에서 경영 능력을 발휘했다. 또 파벌논란과 무관하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빈 전 행장은 관치 논란에 오른 것이 발목을 잡는다. 지난해 지

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공천 대상에 이름을 올려 후보군 중 한 정부와 가장 가까운 인물로 꼽힌다.

외부인사인 김윤모 부회장은 최종 후보자 중 유일한 자본시장 전문가다. 1959년생인 김 부회장은 은행과 자본시장을 두루거친 인물이다. 그는 1983년 조흥은행의 부산 영업점에서 근무하며 부울경 산업 전반에 이해도가 있는 인물로 평가 받는다.

이후 하나은행을 거쳐 솔로몬투자증권 사장과 KTB프라이빗에쿼티 부회장, AJ캐피탈파트너스 대표 등 증권·캐피탈·사모펀드(PE)를 넘나들며 자본시장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고 있다. 또 부산 대동고, 고려대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보스턴대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파벌 논란에서도 벗어나 있다.

다만, BNK금융 내부에서 외부 인사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BNK금융지주 노조는 '낙산 인사'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외부 인사 영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이창권 국민카드 사장 "1등 카드사 도약 전환점 만들자"

2023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개최  
위기 돌파 '공재불사' 발취 주문

KB국민카드가 올해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KB국민카드는 일산연수원에서 이창권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총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2023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영전략회의는 '생존을 위한 재편(R.E.N.E.W.to Survive)', '다음 단계 위한 움직임(Big Movement to the N

ext.Level)'이란 주제로 진행했다.

오전 세션에서는 지난해 경영성과와 올해 경영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구광의 기업문화와 가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복합 위기를 진단하고 업무 방식의 변화와 혁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활동고객 증대 등 본업 경쟁력 강화 방안 ▲디지털 전환(Digital Shift)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부문 대응 방안 ▲2023년 리스크 관리 방안 ▲지속 가능한 KB페이(KB Pay) 이용자

달성 방안 ▲인공지능, 데이터 부문 대응 방안 ▲신성장 추진 방안 등 주요 부문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사장은 세계 2차대전에서 포기를 모르고 위기를 극복한 영국 수상 처칠의 사례를 들어 "소극적, 방어적으로 위함을 회피하기 보다는 위기를 신속하고 지혜롭게 돌파해 1등 카드사 도약이라는 시장의 판을 흔드는 전환점으로 만들자"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공재불사(功在不渝)의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 이석용 농협은행장, 신입행원 특강 실시

행장 취임 후 첫 공식 일정 소화  
광복영농조합법인 방문·애로 청취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이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NH농협은행은 이 행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신입행원 특강과 함께 청주시에 있는 농식품 전문기업 광복영농조합법인을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행장은 청주교육원에서 진행된 이번 특강에서 농협은행원이 지녀야 할 다섯가지 업무자세를 강조했다. 이어 농협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광복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여 현장 애로사항과 현안을 청취했다. 광복영농조합법인은 자체브랜드를 보유한 영농조합법인으로 지난해 농식품부가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중소기업이다.

이 행장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차별화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응원한다"며 "농식품기업 지원 및 생명·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